

2000년 축산기자재 결산

“

앞으로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의 기초가 되는 축산기자재산업의 발전은 사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축산시설의 자동화·현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자금은 개방화 시대의 축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

박 제 호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사무국장

우 리 축산기자재업계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올해가 다가오는 시점에 매우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IMF외환위기 극복이후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의 발생으로 축산기반 산업이라 불리우는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산업은 문제의 심각성이 경제적 손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축산생산기반이 서서히 붕괴될 우려마저 예상된다.

특히 축산기자재산업은 시설정책자금 지원 축소와 수출중단에 따른 사육여건의 악화로 축산신축이나 시설 개·보수 작업 연기, 사업 자체 취소로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기자재 생산업체들의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자금란에 직면하고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축사시설 이용농가들이 A/S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가 하면 대책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어 거시적인 대안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앞으로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의 기초가 되는 축산기자재산업의 발전은 사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축산시설의 자동화·현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자금은 개방화 시대의 축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정책을 병행해 합리적인 시설정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최적시설·기계산업 지원체계의 정립으로 자금투자가 극대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금년 축산기자재 업체의 예상 매출은 전년에 비해 30%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그중 조사료 농기계업체는 15~20%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조금은 낡은 편이나 그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축산기자재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며 타 농업기계에 비해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은 우리의 경영환경 속에도 새로운 시장질서가 다가서고 있다.

포화상태의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탈출, 조사료 농기계업체의 중심으로 동남아와 중국 등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축산기자재 산업의 희망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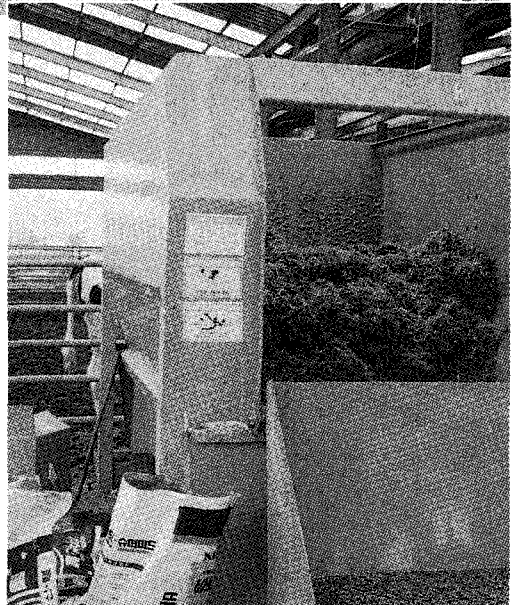
축산기자재의 표준화·규격화가 안돼 동일시설·기계장비를 업체별로 다른 규격형태로 생산·기계장치 부품의 호환성이 적었으나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7~8개 품목시 표준화·규격화를 추진하여 산업자



원부의 심의를 거쳐 KS규격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유지관리 및 수리가 용이해지며, 제조·기능을 표준화로 취급부주의에 의한 피해를 축소하게 할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축산기자재 기술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기초작업이 되며, 나아가서는 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추진중인 축산기자재 계통구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차 추진품목과 대상업체가 확정되어 200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통구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어려움에 처한 축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계통구매사업이 추진되면 축산기자재 판매대금의 신속한 회수로 생산업체의 편익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의 회수비용 절감으로 가격안정과 원가절감이 되고 축산기자재 판매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농기계구입지원 사업과

같이 축산기자재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품목 및 대상업체 확충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며 조만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책지원 사업으로 축산시설의 자동화 촉진 및 국내여건에 적합한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공급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의 융자 금리가 본 회의 건의로 2001년부터 8%에서 5%로 하향조정되어 기자재 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시장의 활로 개척을 위해 중국요령성 안산시에 농·축산

기계 상설전시장을 금년 4월에 개장하여 25개 업체가 전시 판매 중이며 '2000 북경 국제 집약화 축목전람회' (4.18~4.20)에도 국내 13개 업체가 공동 전시 참여를 하였고 향후 해외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앞으로 활발한 해외 전시 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수요는 없지만 개·보수 및 부품 교환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자재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으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신제품 출시와 서비스 개선으로 매출이 신장하는 업체도 있

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축산경기의 침체로 축산기자재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작은 힘이나마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만 이루어진다면 축산기자재 업계의 회생이 어느 정도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축산기자재의 고품질화 제품을 생산하는데 앞장서는 것만이 축산업에 있어 21세기를 리드하는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1년에도 금년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다지는 사업추진을 영위할 계획이다.

착유기 판매합니다!

- 착유기(개봉하지 않았음)
- 이테리(테크로스)제
- 2열×8두
- 헤링본
- 풀자동
- 가격(4,000만원) 상담후 결정

연락처



TEL : (063)653-0166
H.P : 011-612-0166

김상우